

“대중에게 친근한, 봄비는 공간 됐으면”

“예술인들만 있는 공간이면 안된다. 관객(대중)들이 와서 즐기고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일반인들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왕래해야 한다. 밤 8시가 되면 어두워지는 곳이 아니라 예술이란 것으로 사람들이 봄비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엄청난 돈을 들여 리모델링했는데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봐왔다. 소수가 감상하는 공간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외글과글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제주문예재단, (가칭)제주아트플랫폼 조성 공론화 본격 지난 27~29일 도민·예술인 의견수렴 라운드테이블 열려

제주문예재단이 옛 아카데미극장(재밋섬 건물) 유휴공간 문화 재생을 통해 조성할 복합문화공간 ‘(가칭)제주아트플랫폼’ (이하 아트 플랫폼) 조성 방향에 대해 도민과 예술인들이 꺼내놓은 의견이다. 재단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옛 아카데미극장 1층에서 100여명의 도민과 예술인이 참여하는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 사진

이에 대중 유입을 위한 웨디 클래스, 진로체험, 다양한 연령층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교육 등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옛 영화관의 기능을 살려 독립영화를 상영하거나 미디어 아트 체험 공간, 버스킹 공연 거점 공간으로의 조성 필요성도 제안됐다. 이외에 중·소극장 무대로 활용 및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 운영,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스 활용 의견과 1층에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되 주변 상권

을 고려하고, 아트숍, 공유 공방,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의 다양한 공간 조성 방안도 제시됐다. 아트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야간 및 민간위탁 운영비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편 재단은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정리해 이달 중 설명회를 통해 도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도민 설문조사도 진행해 오는 6월엔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예술문화분야 ESG 경영 적극 활용을”

제주예총, 기후위기 예술문화정책포럼 감사패 수여식도... 예술꽃축제 마무리

제주예술문화계가 기후위기 및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경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제주예총)가 ‘2023 제주예술문화축전’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아스타호텔에서 개최한 ‘기후 위기 예술문화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김태관 원장의 주장이다.

김 원장은 또 “지원기관에서 수혜단체와 사업 계획수립시 종이컵 사용금지, 텀블러 사용 등 친환경 내용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부시 친환경 사례를 적용하고 적극 권장해야 한다”며 “현수막과 배너 등을 최소화하고 디지털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 이철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유럽은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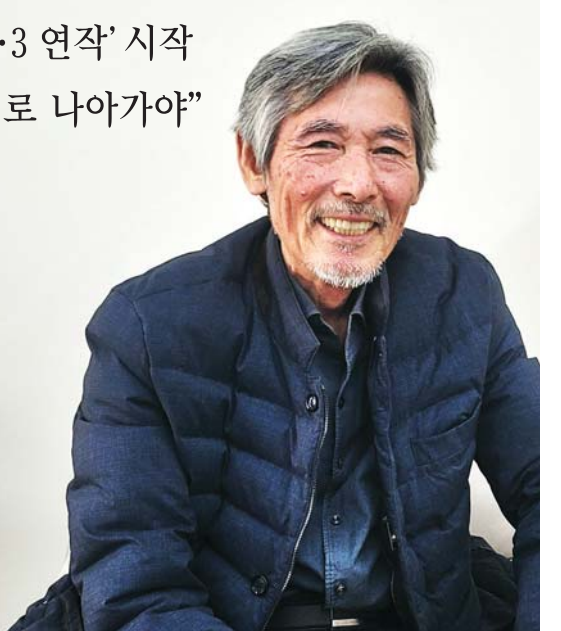
연계한 다양한 포괄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술문화의 미래 정책은 문화예술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술문화 부흥 지원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앞서 진행된 제주예총 61주년 기념 감사패 수여식에선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이승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예총 감사패를 받았고, 제주예총 공로패와 기관장상도 각각 전달됐다. 이어 29~30일 이틀간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등에서 축전의 또 다른 행사인 ‘봄날이 예술꽃축제’가 진행됐다. 오은지기자

한라인터뷰 제5회 제주4·3평화상 특별상 수상자 강요배 화백

“내 고향 역사 공부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

축하를 건네자 그가 겸연쩍은 미소를 지어보인다. ‘4·3미술을 이끈 선구자’ ‘4·3미술의 거장’이란 평가 속에서 “그냥 4·3을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하던 그는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론 과분한 상”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운명같은 끌림”... ‘4·3 연작’ 시작 ‘4·3미술, 예술적 성취로 나아가야’



올해로 5화제를 맞는 제주4·3평화상의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강요배(71·사진) 화백의 이야기다. 강 화백은 지난한 4·3진상규명운동의 역사 속에서 예술을 통해 기억 투쟁에 앞장서 왔다. 4·3의 실체를 그림으로 재현해 세상에 알리며 4·3진상규명에 기여한, 국내 인사는 처음으로 4·3평화상 특별상을 받는다. 4월의 끝자락인 지난 27일 그의 작업실 ‘귀덕화사’에서 화가를 만났다.

1980년대부터 민중미술을 시작하며 역사적인 시각을 그림에 투영해 온 강 화백은 1990년대 ‘4·3연작’을 통해 ‘4·3화가’로 대중에게 각인됐다. 4·3을 함부로 표출하지 못하던 시기, 4·3관련 서적들을 끌어모아 6개월 정도 부지런히 공부한 그는 이후 3년 여에 걸쳐 50점의 4·3 연작을 그려낸다. 그리고 1992년 서울에서 ‘제주민중항쟁사’ 전시를 통해 선보이며 4·3을 전혀 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4·3을 비롯 자신의 고향에 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배우고 알아가는 일은 예술가를 비롯 누구에게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 4·3미술이 예술적인 성취로 나아가야 함도 피력했다. 진상규명 등의 사회적 성취를 넘어서 4·3에 대한 학습과 탐구의 토대 위에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 감수성을 더해 보다 폭넓은 감동과 울림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예술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화가는 다음 작품을 위해 지난 3~4년 집중한 전시로 지친 몸을 재충전하고 있다. 최근 화폭에 제주의 풍광과 이를 바라보는 제주인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그가 선보일 새로운 작품이 기대된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은 이달 30일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올해 제주4·3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당시 4·3을 문학으로 접한 사람은 꽤 있었다. 그것을 시각화시켜 4·3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던 것 같다”며 “처음엔 무심히 보다가 중간쯤 가

면 갑자기 사람들의 정서가 변해가면서 나중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때를 떠올렸다. 이후에도 작가는 ‘동백꽃 지다’ 전시 등을 통해 4·3연작을 추가했고, 현재 80여 점에 이르고 있다. 그가 그린 2500여 점 가운데 ‘4·3 연작’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청년시절 집중한 4·3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는 “막연한 공포, 분노, 무력감 등의 덩어리였을 뿐 윤곽도 잡히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4·3을 다루게 된 것을 “운명같은”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30대 후반 몸이 안 좋아져 신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을 때 무리해서라도 그냥 한번 공부하고 그려보자는 생각이 시작이었다. 다른 이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상하고 묘한” 일이지만 작가에게는 강한 인상을 줬던 것 같다”며 “처음엔 무심히 보다가 중간쯤 가

제주도립무용단

찾아가는 무용교육

장전·더덕초 2개교서

제주도립무용단(예술감독 겸 안무자 김혜림)이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무

용교육’을 운영한다. 대상은 지난 3월까지 신청을 받아 장전·더덕초 2개교 총 125명을 선정했다. 교육과정은 초등학생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삼춤, 부채춤, 강강술래로 구성됐다. 도립무용단은 학생들에게 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춤을 시도

할 계획이다. 지난달 시작된 찾아가는 무용교육은 오는 7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소품은 제주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부 부담한다. 교육 완료 후 7월 13일엔 제주문화예술회관에서 성과발표회가 열린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품 서

명사 법계

서응당 일경스님의 [명사 법계] 품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응당 일경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하는 봉림사 신도회

회장 문현순 외 신도회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